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존폐 논란

2010년 10월 19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인천미술계와 예술계가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3회를 넘긴 이 비엔날레는 그동안 정체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온데다 조직위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존폐 논란까지 빚고 있다.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선 인천여성비엔날레가 여성미술담론을 제대로 담아 못해 대규모 기획전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며 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적극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예산을 지원해온 인천시는 내년 개최될 4회 비엔날레를 앞두고 예산 지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이번주안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지속론을 주장하는 미술평론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미술계 인사들의 기고 2편을 지면에 소개한다.

"세계 미술계 주목 끄는 문화 이벤트 성장 가능"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주최하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차기 행사의 개최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서로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미흡한 평가 결과와 조직의 투명성 등을 문제로 삼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최를 주장하는 측은 동 행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예술 인프라와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인천의 브랜드 가치에 주목하자고 호소한다. 그러니 영문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 행사를 죽 지켜봐 온 필자는 행사를 지속하는 것이 인천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과연 그 후에 무엇이 인천에 남는가 하는 결과에 대해 성찰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무릇 문화행사는 3회가 고비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동 행사는 마(摩)의 3회를 넘어 4회째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를 지지하는 필자의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 이유는 필자의 현장 경험에서 유래한다. 필자는 5년 전에 경기도의 P시가 주최하는 국제전의 조직위원장 겸 예술총감독 직에 위촉돼 행사를 치룬 적이 있는데, 이 행사는 그 후에 비엔날레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단 2회에 그치고 말았다.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저예산으로 18개국 18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였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지역민들의 반대 때문에 좌초하고 만 것이다.

두 차례의 행사에 투입된 7억 원의 세금을 날리고 거기다 시의 대외적 이미지마저 흐리는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한 것이다.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경우, 작년 행사 기준으로 6억 원의 예산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광주비엔날레’나 ‘부산비엔날레’의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예산이다.

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 액수인지는 국제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3회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 예산으로 41개국 297명의 참가는 말이 쉽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작품 운송을 비롯하여 해외 작가 초청, 보험, 도록 출판, 인력조달, 숙박 등등 비용이 지불되는 항목은 부지기수다. 이는 비엔날레의 전시 관계자는 물론 참여작가들의 희생과 협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항간에 들리는 것처럼 왜 하필 ‘여성미술비엔날레’여야 하느냐고 명칭과 정체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이 바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지닌 장점이기도 하다. 남성 위주의 문화 구조에서 불리하게 형성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담론의 장이 필요한데, 운영만 잘하면 이 행사가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끄는 문화 이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운영진의 보다 합리적이며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혹시 구태의연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줘 신뢰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제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총감독제’도 검토해 볼 의제다. 전시기획에 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춘 유능한 여성 총감독을 기용하여 일사분란한 행정과 함께 전시를 통한 문화적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다. 공동 큐레이터 제도는 관점의 다원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령탑의 부재로 인해 행사의 선명성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

주최 측은 반대하는 측의 반대 이유를 잘 살펴 이를 보약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주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젠 멈춰서 생각할 때"

정정엽 작가

성공적인 전시는 새로운 미술담론을 생산, 실험하는 장이 돼야 한다. 작가, 기획, 관객의 예술적 관점을 확대하고 소통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 마련에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인천 여성미술비엔날레’는 지나간 여성미술 담론에 머물고 있고 비엔날레를 통한 새로운 작가의 발굴이나 참여 작가의 예술적 성취가 확장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3일 토론회에서 발표한 비엔날레 사업 개요를 보면 국내외 유명작가 참여, 유명작가의 작품 전시,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돼 있다.

비엔날레는 유명작가의 작업을 검증하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자리이지 유명작가의 지난 작업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한 여성 작가는 전체의 1/3이다(중략). 심포지엄에서 권경애 조직위원장과 참여 작가들이 이런 말을 했다. 1/3을 차지하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럼 1/2을 차지하는데는 아마도 20~30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여성미술도 유효할 것이다”(2009년 9월 월간미술, 커미셔너 양은희 인터뷰 중에서).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여성작가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이슈 자체가 여성미술담론을 지향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순 참여 기회 제공만으로는 여성미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치밀하고 집약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인천 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는 여성 미술에 대한 내용적 고민과 철학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여성 미술활동을 지속해왔던 작가들과 비평 쪽에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인천 여성미술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출발점 자체가 여성미술의 역사적, 현재적 고민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단법인 ‘인천여성작가협회’가 조직위로 구성돼 있는 현재의 폐쇄적 구조로는 근본적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

‘여성미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미술사와 한국 미술계에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여성작가가 단지 주류에서 소외됐다는 일차적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 언어가 보편적 진리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성성에 대한 탐구, 소외의 구조적인 문제, 이에 대한 비판, 전복, 대안 등의 모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창조적 방식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폐쇄적 구조, 공공영역의 사조직화, 과정의 불투명, 목표 지향의 권위주의 등 그동안의 남성적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한 여성 미술의 이슈였다.

미술문화의 민주화와 과정의 회복만이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과 소통을 이뤄낼 수 있다.

규모의 확대나 명분의 외피가 아니라 문화적 충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작의 진통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비판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가 무엇을 향한 열정인지 되물어 볼 때다.

인천 여성미술비엔날레는 홍보나 예산의 규모에 비해 인천 대중과의 활발한 논의나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인천의 지역성이나 문화예술 활동 기반의 연계 및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비엔날레로서의 예산 규모만 탓 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문화 예산안에서의 독점적 비중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사실 예술적 성취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인천여성작가들의 경력 쌓기는 이미 얻을 만큼 얻었고 지금의 구조로 존속한다는 것은 구조의 경직화만 가져올 뿐이다.

정말로 여성미술의 절실한 지점이 있다면 굳이 이런 큰 규모나 지원이 아니어도 열정과 실천을 보여줄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에 난립하고 있는 비엔날레에 꼭 편승해야 할 이유도 없다. 행사 하나에 쏟는 예산으로 30개의 중형무진한 기획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버라이어티한 실적 위주의 행사가 예술발전의 토대가 될 수 없음은 이제 식상할 만큼 보아왔다. 관행을 깨는 것도,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멈춰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창작의 중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